



큐비즘의 특징을 활용한 메이크업 작품 연구

이종애¹, 문윤경^{2,*}

¹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대학원, ²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Make-up Works Applying Feature of Cubism

Jong-Ae Lee¹ and Yun-Kyeong Mun^{2,*}

¹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01133, Korea

²Departmen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01133, Korea

(Received February 15, 2016; Revised March 11, 2016; Accepted March 11, 2016)

This study aims to improve make-up artistry by combining elements of Cubism to suggest creative make-up designs. We investigated specialized books, thesis, and online materials about Cubism, and classified its painting features and expressional techniques. Then, we selected the most influential Cubists and created 8 make-up designs inspired by their works. Analytic Cubism contains various views on one screen, but, using transparency, it is possible to see multiple images despite them overlapping. Collages of comprehensive Cubism use various materials including different types of paper. Picasso and Braque - founders of Cubism - were selected, and four works from each artist were studied. Ambiguities between background and object were shown due to multiview expressions and de-construction/reconstruction of analytic Cubism. In comprehensive Cubism, colors that disappeared were introduced again along with letters to allow the visualization of simplified structures. Next, make-up works were created from these analyses. This study was based on Cubism's expressional techniques and most influential artists. Future studies can be combined to offer additional concepts combining art and make-up. We expect that this would increase the artistry and originality of make-up.

Keywords : Art make-up, Braque, Cubism, Make-up, Picasso

서 론

1. 연구목적

21세기의 사람들은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세기의 급격한 과학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도 그 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분야와 장르, 문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현상은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는 개념 중 하나이며, 21세기 문명화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Cho, 2013). 하이브리드 현상은 다양한 분야 중에서 특히 미술과의 결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 큐비즘(cubism)은 현대의 미술과 건축, 패션 분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브라질 출신의 예술가인 로메로 브리토(Romero Britto)는 큐비즘에서 영감을 얻어 네오팝 큐비즘이라는 장르를 창시했고 디즈니, 벤틀리, 펍시 등 여러 회사들은 그의 작품으로 디자인하여 제품을 출시하였다. 건축 분야에서 Kim (1999)은 큐비즘의 조형성이 러시아의 건축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패션 분야의 Lee & Park (2001)은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인 기하학적 조형과, 동시성, 투명성, 콜라주를 언급하여 현대패션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창의적 근거를 미술양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건축,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큐비즘의 특성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메이크업 분야에서 큐비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ang (2011)은 피카소의 큐비즘 이미지가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에 대하여 연구하였

* Correspondence to: Yun-Kyeong Mun, Department of Clothing, Sungshin Woman's University, Seoul 01133, Korea. E-mail: munfish@hanmail.net

고, Lee (2012)는 피카소의 큐비즘적 표현을 아트메이크업과 포토샵을 이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Kang (2011)의 연구는 고찰 논문이었으며, Lee (2012)의 연구는 작품 논문으로 큐비즘적인 요소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지만, 큐비즘에 대한 표현은 메이크업에서보다는 포토샵 작업에서 강하게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메이크업 분야에서 큐비즘에 대한 연구 중 피카소에 대한 논문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큐비즘에서 빠질 수 없는 브라크와 큐비즘의 특징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메이크업으로 표현한 작품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메이크업 분야는 예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술성이 강조되기보다는 기술성만 부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큐비즘이라는 미술 사조를 메이크업에 직접 활용하여 메이크업 분야의 예술적 가치 창출과 큐비즘을 통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메이크업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큐비즘에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 논문 및 다양한 문헌을 활용하고 분석하여, 큐비즘의 대표 작가 2인을 선정하고, 작가들의 큐비즘 이미지를 이용하여 분석적 큐비즘과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에 따른 작품 8가지를 제작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큐비즘의 개념

수 세기 동안 서양회화의 방식인 원근법은 구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의 사실주의 회화 이후 인상주의에 이르자 기존 회화의 방식은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원근법에 의한 회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Janson, 1988), 사유하고 해석하여 개념화시킨 회화 공간 그대로를 인정하는 큐비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큐비즘이란, 1907년부터 1914년 사이에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와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를 주축으로 시작된 미술 운동으로 1908년 화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가 살롱도톤(Salon d'Automne)에 출품된 브라크의 작품 '레스타크의 집들'을 보고 '큐브(cube, 입방체)'라는 단어를 언급하여 비평하였다(Cox, 2003). 그 이후 '큐비즘'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입체파' 혹은 '입체주의'라고도 불리며, 이러한 큐비즘 양식을 사용한 작가들을 '큐비스트'(Cubist)라 지칭한다. 큐비즘은 원근법적 시각으로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관찰된 대상의 여러 모습들을 한 화면에 모두 그려내는 그림으로, 파편화된 대상의 모습들이 한 화면에 담기게 되는데 이 균질감이 큐비즘 미술의 특징이다(Oh, 2007). 초기의 큐비즘은 세잔느 풍의 큐비즘이라고 할 만큼 세잔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로 자연은 '원, 원통, 원추'라고 정의하였던 세잔느의 이론을 심화시켜 기하학적 구체, 원통형, 삼각추, 입방체 등으로 응용하여 대상을 정리하였다(Soh, 1995).

2) 큐비즘의 대표 작가

큐비즘의 화가들은 살롱앵데팡당(Salon des Independants)전에 참여한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 소피아 들로네(Sopie Delaunay),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 등(IM, 2000) 선 강변을 중심으로 모인 큐비스트들과 살롱 도톤과 몽마르트의 화실을 주축으로 한 피카소와 브라크의 모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본 연구는 큐비즘의 창시자이며, 큐비즘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피카소와 브라크를 대표 작가로 선정하였다.

(1)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의 작품 변모 과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 그중에서도 영국의 작가이자 화가인 롤랜드 펜로즈(Roland Penrose)가 11단계인 초기 시대(1895~1901), 청색 시대(1901~1904), 장미 시대(1904~1906), 니그로 시대(1906~1909), 분석적 큐비즘 시대(1909~1912), 종합적 큐비즘 시대(1912~1917), 신고전주의(1917~1924), 꿈의 분석 시대(1925~1935), 분노의 시대(1936~1945), 안티드 발로리스 시대(1946~1954), 칸느 보브나르그와 무쟁 시대(1955~1973)로 구분한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Park, 2010). 이에 본 연구는 큐비즘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니그로 시대부터 큐비즘의 마지막인 종합적 큐비즘 시대까지 피카소의 삶과 작품에 대하여 구분한다.

① 니그로 시대

피카소가 파리의 인류학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흑인 미술의 발견과 그들의 춤이나, 탈, 조각 속의 원색적이고 직선적인 표현 기법에 깊은 감명을 받아(Lee, 2012) 그린 '아비뇰의 처녀들'은 매우 실험적인 작품으로 이 작품이 지닌 중요성은 예술적 완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충격적인 혁명적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비뇰의 처녀들'에서는 화면의 주제를 이루는 인물조차도 해체될 수 있으며 배경이나 다른 대상물과 동등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체의 평면화가 가능해진다.

② 분석적 큐비즘 시대

분석적 큐비즘 시대의 그는 대상을 더 작고 얇게 해체하였으며, 아직 흑인 미술의 영향을 받았던 때이다. 브라크가 정물과 풍경 작품을 주로 했다면, 피카소는 정물과 풍경뿐만 아니라 인물 작품도 많이 다루었는데 자신의 첫 번째 연인 페르낭드를 모델로 하여 그린 작품 '페르낭드의 초상'을 보면 얼굴을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관찰하여 수많은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Yun, 2003). 또한 흑인 미술의 영향으로 '아비뇰의 처녀들'과 비슷한 얼굴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1937년 피카소는 자신의 다섯 번째 연인 도라를 모델로 하여 '통곡하는 여인'을 그리는데 이 작품은 얼굴의 형태와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코와 눈은 왼쪽과 오른쪽 측면으로 구성되는 형태까지 다